

수출규제 관련 중국동향(11.19~21)

1. 지소미아 종료 관련

□ [언론 동향]

- 중국신문망(中国新闻网)은 문재인 대통령의 발언을 인용하여 한국 정부 또한 지소미아 종료 순간까지 종료를 막기 위해 노력을 할 것으로 보인다고 보도.¹⁾
 - o 한국 정부도 지소미아 종료를 원치 않으며, 종료 상황을 막기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고 인용 보도
 - o 19일 한국 정부의 ‘국민과의 대화’에서 문재인 대통령은 지소미아 종료가 일본이 한국을 신뢰할 수 없는 국가로 지정했기 때문에 내린 결정이라며 정당성을 강조
 - o 또한 지소미아는 아직 종료되지 않았으며, 최후의 순간까지 일본과 함께 노력할 것이라고 언급
- 인민일보 해외망(人民日报海外网)은 지소미아 종료에 대한 한·일 입장 차를 인용 보도하고, 한·일 관계 정상화는 한국 정부에게 달려있다는 중국 전문가의 의견을 보도²⁾
 - o 중국사회과학원 아태글로벌전략연구원 董向荣 연구원은 한·일 분쟁이 역사문제와 경제문제를 넘어 군사·안보 분야로 확산된 것이며 한·일 관계 정상화는 한국 정부에 달려있다고 평가
- * 또한 한국 측이 지소미아를 한·일 통상마찰 해결을 위한 정치적 카드로 간주한다면 선회의 여지가 남아있으나, 신뢰의 문제라고 생각한다면 지소미아가 유지되기는 힘들 것 이라고 분석

1) 「韩日军情协定即将到期 文在寅：将努力避免终止」, 『中国新闻网』(2019. 11. 20)

2) 「韩日能否“破冰”? 专家：紧张局势已现一丝松动」, 『人民日报海外网』(2019. 11. 19)

- 또한 동북아 지역에서 한·일 양국의 영향력이 크기 때문에, 안정적인 경제 관계 유지에 양국과 지역 정세에 긍정적인 의미가 있다고 강조
- 관찰자망(观察者网)은 지소미아와 관련하여 해리 해리스 주한 미국 대사와의 인터뷰 내용을 인용 보도³⁾
 - 해리스 대사는 “미국은 한·일 양측이 견해를 극복하고 지소미아를 연장하기를 강력히 희망하고 있다”며, “한국 측의 (지소미아 종료) 결정은 주한미군이 한국을 방위하는 것을 더 복잡하고 어렵게 만들었을 뿐 한국군도 더 큰 위협에 빠뜨리는 것이라고 주장
- 중국청년보(中国青年报)는 지소미아 연장에 대한 한·일 입장 차가 아직도 크다고 인용 보도⁴⁾
 - 일본 정부는 수출 제한 조치 철회를 근거로 지소미아 종료 철회를 고려하겠다는 문재인 대통령의 발언에 대해 지소미아 종료와 수출 제한 조치는 다른 측면의 문제라고 계속해서 주장
- 한·일의 의견 대립이 계속되는 가운데 스가 요시히데 일본 관방장관은 지소미아가 종료되면 일본은 미국과의 정보협력을 통해 이를 보완할 것이라고 발언하며 한·일 양자관계보다는 한·미·일 다자관계의 중요성을 언급
- 한국 정부가 체면보다 질서 구축이라는 큰 틀을 고려해야 한다며 한국 정부가 한반도를 넘어서 생각하고 멀리 보기를 바란다는 일본 매체를 인용 보도
- 해방일보(解放日报)는 한·일 간 지소미아가 연장되기 어려워 보인다는 의견을 인용 보도⁵⁾
 - 상하이 대외무역대학교 한반도연구센터 詹德斌 주임은 지소미아 연장을 위한 한국의 요구 조건과 이에 대한 일본의 거부 입장이 명확하다며 지소미아 연장 가능성은 크지 않다고 평가

3) 「国驻韩大使哈里斯：美国强烈希望韩日续签军情协定」, 『观察者网』(2019. 11. 19)

4) 「日本要为日韩情报协定努力到最后一刻」, 『中国青年报』(2019. 11. 20)

5) 「防长会谈没谈拢, 韩日军情协定恐难“续约”」, 『解放日报』(2019. 11. 19)

* 한국의 지소미아 의존도는 높지 않으며 북한과 지리적으로 가깝고 또 민족 간의 문제에 대해 (북한과) 일본과 협력하지 말자는 여론이 있기 때문에, 한국이 지소미아를 연장할 가능성이 매우 낮다고 분석

o 또한 미국 국방부가 지소미아 종료는 러시아, 중국, 북한에 유리한 상황을 만든다고 언급한 것을 강조하며, 지소미아는 미국의 중요 전략의 일환이며 본 협정이 깨지는 것은 미국 전략의 실패라고 분석

o 한·일이 겉으로만 친해 보이며, 실제로는 (한국의 거부로) 지소미아를 통해 북한 미사일과 관련된 정보만 공유해왔으며 3년 동안 정보 공유 횟수가 22건에 불과하다는 朝日新聞을 인용 보도

o 중국 중국국제문제연구기금회 王泰平 연구원은 지소미아 종료 결정이 일본의 수출 제한 조치에 대한 보복이며, 수출 제한 조치는 강제 징용 노동자 배상 판결에 대한 보복이므로 어느 한쪽도 쉽게 양보하지 않을 것이라고 평가

* 또한 한국 정부가 강조하는 것처럼 지소미아는 한·일 간 문제일 뿐 한·미 동맹과는 무관하다며, 지소미아 존폐 여부로 인한 실질적 영향은 없을 것이라고 분석

- 중국신문망(中国新闻网)은 일본의 입장이 바뀌지 않는다면 지소미아는 내일(23일) 종료된다는 강경화 외교부 장관의 발언을 인용 보도⁶⁾

o 한국 국회 회의에서 지소미아가 내일(23일) 종료되냐는 질문에 강경화 장관은 일본의 태도가 변함이 없다면 한국 정부의 입장에도 변화가 없다고 답했음을 인용 보도

o 지소미아 종료 일자 연장에 대한 질문에도 일본의 수출 제한 조치는 분명히 불공정하며 보복성의 조치로 신뢰를 손상시키는 것이라고 강조

2. WTO 양자협의 관련

6) 「韩外长：若日本态度没变化，韩日军情协定将如期结束」, 『中国新闻网』(2019. 11. 21)

□ [언론 동향]

- 중국신문망(中国新闻网)은 한·일 양국이 WTO의 분쟁해결 절차에 따라 11월 19일 스위스에서 2차 양자협의를 가졌으나 합의에 이르지 못했음을 보도⁷⁾
- o 수출 규제 조치에 대해 일본은 군사적 용도로 사용될 수도 있는 상품에 대해 보다 적절하게 관리하기 위한 것이라고 주장, 한국은 수출 제한 조치가 WTO 원칙에 위배되는 것이라고 주장하면서, 양국의 입장 대치는 계속됐다고 일본 매체를 인용 보도
- o 한국 대표의 “3차 양자협의 가능성은 높지 않고 협상 결과에 따라 소위원회 설치를 포함해 향후 대책을 논의하겠다”는 발언을 인용, 3차 양자협상 보다는 WTO에 무역분쟁기구(DSB)의 패널 설치를 요청할 것으로 예측된다고 인용 보도

7) 「各不相让! 韩日世贸争端第2轮磋商失败 日本或成“被告”」, 『中国新闻网』(2019. 11. 20)